



말씀 찾아 부심이 만나러 가는 길

《부심이의 엄마생각》 무료배포 및
저자 설명회 연 백기완

백기완(72) 선생을 찾아가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4호선 혜화전철역 3번 출구로 나와 학림다방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 감자랑집이 나온다. 그 집과 나란히 붙은 오른쪽 하늘색 대문집이 바로 선생이 31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통일문제연구소다. 간혹 피업한 노동자들이 일이 안 풀릴 때 찾아와 힘 되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연구소를 비우곤 하지만 별 일이 없으면 선생은 매일 도시락을 써서 이곳으로 출근(?)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찾아가도 선생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늘색 대문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각오해야 한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행여나 서양의 한 종교를 전도하러 갈 생각이려면 아예 발을 들여 놓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선생에게 그 종교가 말하는 자유는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와 하나 다를 게 없다. 정치인이나 기업가 혹은 법률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옛장수가 땅에 떨어뜨린 옛’을 먹고 자란 자들이다. 행여나 도와주겠다고 찾아가다가는 들어서자마자 선생의 벼락같은 호통을 들어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야”... ‘자본의 폭력’에 불호령

〈출판저널〉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5일이었다. 10월 7일 학림다방에서 《부심이의 엄마생각》 무료 배포 및 저자설명회 ‘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참출판이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선생을 찾아갔다. 근황이 궁금하다는 기자의 첫 번째 질문에 선생의 ‘고함’을 있는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다.

“난 찌덜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썩어문드러진 새끼들. 웃기지 말라고 그래. 진짜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무슨 출판찌덜찌덜 그래. (...) 우리 같은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야.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 요새 너도나도 건강건강 하는데 한 개인의 몸뚱이리 건강만 따지면 되겠어. 세상의 건강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야.”

물론 선생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호령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평생 민주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해 남김 없는 삶을 살아온 선생은 사실 요즘 들어 사람이 더 그립다.

2년 전 겨울이었다. 방송국에서 섭외(!)를 하러 선생을 찾아가던 일이 있었다. 〈TV는 사랑을 싣고〉의 안혜진이라는 작가였다.

선생이 보기엔 방송국이야말로 자본가들의 소굴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출연이라니... 선생의 벼락같은 고함이 떨어진 것은 당연했다. “찾을 사람도 없고, TV한테 사랑받은 적도 없고, TV 방송국에 불을 질러도 못 나가.” 선생의 답이었다. 그런데 몇 번의 줄다리기 끝에 작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찬 데서 지내는 걸 그냥 보곤 못 돌아가겠다”며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일러를 고쳐드리면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어림없는 소리였다. 작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갔다.

다음날이었다. 또 그 작가가 찾아왔다. 방송은 출연 안 해도 좋으니 보일러라도, 보일러가 안 되면 뜯어진 문짝이라도 고쳐드리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다. 때마침 배관공이 얼어터진 수도를 고치고 있었다.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또 저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터지고 하는 식이었다. 보일러도 없이 겨울을 나고 있었으니 수도가 아니라 선생의 몸이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선생으로서도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 한겨울에 물에 잠길 집도 그렇지만 손녀딸 같은 작가의 진심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안 작가는 지인들에게 선생의 사정을 알려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아왔다. 개그우먼 김미화 씨는 아예 보일러를 사 들고 왔다. 선생은 그 답례로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했고, <전두환 정권의 폭압을 피해 간 전라도 무안에서 자신을 보살피준 농사꾼을 찾을 수 있었다> 또 새로 얻은 따뜻한 거실에서 ‘노나메기 문화특강’을 5회에 걸쳐 열었다.

만 원씩 ‘강도출판’을 해서라도 통일 운동 명맥 이어야

노나메기란 “같이 일하고 같이 잘 살되, 올바르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을 담고 있는 우리의 옛 정서다. 선생에게는 “노동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순정까지 상품화하는 돈의 폭력에 맞서고 그 약탈적 지배를 청산해 새로운 사람의 세상을 열고자 하는 실천적 명제”이기도 하다. 선생은 이곳에서 계간지 <노나메기>를 발행하고 노나메기 정신에 맞는 책을 출간하고 있다.

그런데 책을 내기 전 문제가 있었다. 책을 출판해 뜻을 나누고자 해도 사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택한 방식이 ‘예약출판’이다. 《부심이의 엄마생각》은 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후원자들로부터 미리 책값을 받고 출간을 한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최신 마케팅 기법을 백기완 선생이 썼네!’라고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에게 예약출판은 절박함의 다른 표현이다. 선생은 지난 1998년에도 《벼랑을 거머쥔 솔뿌리여》라는 책을 예약판매를 통해 낸 적이 있다. 31년간 지켜오던 통일문제연구소가 재정적 문제로 문을 닫게 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장산꽃에 이야기》를 낼 때는 아예 책을 지고 방송국에 찾아다녔어. 정말 읽어야 할 책을 읽지 않아 아예 찾아가 책을 내려놓고 한 질 사라고 협박을했지. 《부심이의 엄마생각》도 그래. 말이 좋아 예약출판이지 강도출판이야. 강도출판. 책을 내도 읽는 사람이 없어. 책을 낼 환경이 안 되는 거

야. 그래 “미리 살 수 없겠어?”하니까 그럼 사보겠다고 100명 가까이 나섰어. 협박해서 1만 원씩 뺏은 거지.”

<부심이 춤> <떡도 없는 굶판에선 기침이라도 해야> <남의 배를 채워 주려면 제 배는 좀 주려야> 등 모두 43꼭지로 묶인 빼알간 표지의 《부심이의 엄마생각》은 백 선생이 13살 때 헤어진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동화처럼 풀어낸 산문집이다. 제목의 ‘부심이’는 선생의 어릴 때 닉네임(별명)으로 “과아란 풀빛 바지에 빼알간 땀님, 빼알간 저고리에 풀빛 고름의 옷”을 말한다. 이 책은 단지 지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급격거린 에세이가 아니라 우리시대에 던지는 말씀(회두)인 셈이다. 어린 마음에 땅에 떨어진 엿을 집어 먹은 부심이에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부심아, 제 아무리 달콤한 엿이라고 하더라도 땅에 떨어진 건 먹는 게 아니야. 씹어 봐, 모래 때문에 이빨이 바사져. 그래도 또 씹으면 끝내는 이빨의 뿌리까지 썩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어? 이빨 없는 호물떼기가 되는 거야. 호물떼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겠어? 잡자기 범이 나타나 ‘부심이 너 이놈 잡아먹겠다, 어흥하며 덤벼도 싸울 수가 없어.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야. 알겠어? 어서 뺐어. 제 아무리 단 것이라도 땅에 떨어진 건 먹는 게 아니래두.”

- <땅에 떨어진 엿은 주워 먹는 게 아니다>에서

“이게 내가 우리시대의 지배계층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야. 미국의 식민지 아래에서 정치가니 의사니 법률가니 하는 자리는 다 땅에 떨어진 흙이야. 자신이 앉은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알아야 해. 그래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아는 거야.”

‘누구나 좋은 책을 쓰고, 또 좋은 책을 읽어야 하지 않겠어?’

학림다방에서 책을 나눠주며 선생은 역시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사말을 하고 자리에 돌아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대금 산조 등 축하공연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운동가들이 모였지만 그 자리에서 일흔이 넘었는데도 애들처럼 어머니를 그리는 선생의 ‘피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

선생을 찾아가는 길은 쉽다. 기자처럼 전화로 길을 묻고 전철역에서 내려 10분만 걸어가면 어렵지 않게 통일문제연구소에 당도한다. 하지만 행여나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까 ‘부심이’를 읽고 민주화라는 이곳에 오기까지 선생은 살이 찢겨지는 추위와 외로움을 견뎌야 했다. 그래서 누구나 그 집 앞까지 찾아갈 수 있어도 아무나 그 집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이다.

선생은 출판계에도 말씀을 던졌다. 우선 요즘은 책을 참 잘 만든다는 게 선생의 평가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선생은 누구나 좋은 책을 쓰고 또 누구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뜻있는 사람 만 오천 명에 십시일반 돈을 거둬 기금을 마련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취재_신동섭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